

◎ 文化財管理局의 新設

今般 政府機構改編에 따라 文敎部長官監督下에 外局으로 文化財管理局이 新設되었는데 아직까지 文敎部 文化局 文化保存課 所管이던 文化財事務와 舊皇室財産事務總局 所管이던 文化財에 關한 事務는 新設되는 管理局文化財課로 移管되리라고 한다.

◎ 延世大에서 新羅土器展

延世大學校 附屬 梅山考古館研究室 設置 記念하여 十月二日까지 同研究室(圖書館四層)에서 開催되었는바 展示品中에서 舟形土器, 異形埴臺, 鞋形土器, 家形土器, 百濟鬼紋埴, 新羅緣釉 等이 注目되었다.

梅山考古館藏 高麗梵鐘 (無銘)

金 良 善

出土地 江原道

總高二一·五cm 鐘高一六·五cm 下徑一一·二cm 上徑八·四cm

本鐘은 解放以後에 發見된 高麗鐘中에서 그 形態와 紋飾에 있어 新羅鐘을 가장 充實히 踏襲한 것이다. 그리고 그 優美한 均衡과 鮮麗한 紋飾과 은 지금까지 發見된 高麗小鐘中 最優美의 것이라 할 수 있다. 上頂部의 龜頭에는 旗插 或은 音管으로 불리워지는 紋飾된 圓筒이 挺出되었는데 中空으로서 鐘안까지 꿰뚫어졌다. 이런 點에서 보면 그 本來의 用途는 音管으로서였고 後에 旗插으로 兼用된 듯하다. 그런데 그 音管은 竹飾形으로 되어 있어 맨 밑은 엷글어진 뿌리가 鐘頂上에 굳게 뿌리박았고 筒竿은 여섯마디를 돌려서 五區로 나누었다. 第一、四區는 比

較의 길며 草葉과 蓮花紋이 各各 浮彫되었고 第二、三、五區는 比較的 짧으며 連珠紋이 各各 浮彫되었다. 그리고 音管은 左右에 두줄기의 波紋이 軋차게 軋쳐 있다. 龍頭는 口에 如意珠를 물었으며 音管 옆으로 꼬리의 끝이 솟아 올랐다.



鐘肩에는 蓮花瓣을 밖으로 비스듬히 세워서 돌렸으며 여기에 잇대어서 아름다운 唐草紋을 돌린 肩帶가 突帶와 突帶사이에 浮彫되어 있는 二段의 連珠紋帶사이에 있고 이 肩帶에 이어서 雷紋을 돌린 乳廓이 四面에 있으며 그 안에 三段三行으로 鐘乳가 蓮座위에 突出되었다. 이 乳廓下에 口帶가 가운데 前後左右에 二個의 飛天像과 二個의 蓮瓣撞座가 浮彫되었다. 飛天像은 구름위에 跪座하였는데 天衣가 飄轉하며 그 姿態는 매우 優雅하여 高麗鐘의 飛天으로서는 例외의 好相을 呈하고 있다. 撞座는 八葉의 複蓮瓣을 圓圈없이 그대로 浮彫하였으며 中房에는 六顆의 蓮子가 複圓으로 表出되어 있어 그 아담한 맛이란 比할데 없다. 口帶亦是 肩帶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唐草紋을 鮮麗하게 浮彫하였다. 本鐘의 形態는 上院寺의 新羅鐘의 그것을 完全히 踏襲하였고 紋飾의 美麗鮮明함에 있어서는 現在 全南 海南郡 大興寺에 珍藏되어 있는 塔山寺鐘을 누르고 있다. 時代에 있어서는 鐘肩에 立蓮瓣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高麗中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나 그 優秀性에 비추어서 初期와 中期에 間에만 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